

도내 스타트업 발굴·육성 결국 '공수표'

'도의원 증원' 국회 논의 귀추 주목

2018년 법 개정안 예비후보 등록일 넘겨 본회의 처리

제주도, 전략펀드 제3호 조성 출자 포기 다른 지자체 2024년까지 투자 지원 대조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제주 4차산업혁명 전략펀드 조성을 약속했으나 결국 '공수표'로 끝나게 됐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민선 7기 공약으로 2000억원 규모의 제주 4차산업혁명 전략펀드 조성을 약속했으나 이달 현재 펀드 조성액은 제1호 전략펀드 150억원, 2호 전략펀드 160억원 등 310억원에 그쳤다. 1호 펀드는 지난 2018년 9월

가상현실(AR)과 증강현실(VR), 미디어콘텐츠 등 디지털 융합산업 분야 투자를 목적으로 조성했으며 현재 투자가 이뤄진 상태이다.

이어 지난 2019년 11월 혁신 스타트업 발굴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성한 전략펀드 제2호는 제주도개발공사·제주테크노파크·제주은행 등에서 지역채권 20억원과 국비로 조성된 한국모태펀드 90억원, 민간투자 재원 50억원을 합쳐 160억원 규모로 조성했다.

제주지역에 기반을 둔 유니콘 스타트업 육성의 초석 다지기와 핵심 기반 기술분야, 기반 기술 응용분야 등에 투자됐다.

제주자치도가 제2호 전략펀드 조성 당시 투자환수와 이익배당을 통해 도민들에게 투자이익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기업들이 손실을 보고 있어 당분간 투자이익 환수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펀드 투자기간 4년과 회수기간 4년을 감안하면 투자이익 공유에는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내기업이 아닌 도외 기업에 투자가 집중돼 도내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는 제주자치도의 펀드 조성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25억원 을 출자키로 했던 제3호 전략펀드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반해 부산, 대전 등 다른 지자체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모펀드를 조성해 2024년까지 성장단계에 돌입한 유니콘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여러가지 절차들이 남아 있었는데 제3호 전략펀드에 납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며 "3호펀드 조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고대리기자 bigroad@ihalla.com

오는 6·1 지방선거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도의회 의원 3명 증원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2018년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 상황이 재연될지 그보다 더한 혼란이 연출될지 국회 논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인구수 증가에 따른 선거구 조정을 다루기 위해 출범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제주도의원 3명 증원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다음주중 진행할 예정이다.

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4년 전 제주도의원 2명을 증원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을 때에도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쟁점이 되면서 법 개정이 지연된 바 있다. 당시 예비후보등록일까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후보자들은 기존 선거구대로 등록을 하고, 법 개정이 이뤄지자 선거구 획정 작업을 다시 하고 등록을 변경하는 혼란상이 연출됐다.

그나마 당시엔 정부 측과 국회가 제주도의 인구수 증가에 따른 도의원 2명 증원 필요성을 인정했기에 쟁점사안이 해결된 뒤 도의원 증원 법 개정은 그대로 진행됐다.

그러나 이번 도의원 증원은 2연속 증원 요구에다 인원도 3명으로 늘어 정부와 국회 모두 충분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법 개정이 낙락한 상황은 아니다. 또 올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4년 전 3월보다는 좀 더 이른 시점인 오는 2월 18일부터 시작돼 시간적인 여유도 없다.

만에 하나 국회가 도의원 증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도 상정해 봐야 한다. 이럴 경우 현재의 결정에 따라 인구 비례 상한선과 하한선 기준을 적용해 과대 선거구는 쪼개기도 농촌지역의 경우 광역의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전국 13개 지자체는 공

국회·부미현기자 bu6385@ihalla.com

감귤 상품 기준 변경

>>면에서 계속 제주도가 감귤 상품 기준 변경을 검토하게 된 이유는 이런 처리난에 더해 시장성이 있는 비상품 감귤 일부를 상품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농가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대과를 선호하는 러시아 시장 등을 고려해 수출용에 한해 2L 이상의 감귤을 상품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내 시장에서 2S 미만도 소비자가 선호하기 때문에 해당 규격의 유통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그러나 기존 비상품감귤을 상품으로 취급하면 당연히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늘어 가격 지지가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 기준 변경 논의에 주된 목적은 비상품감귤 처리난을 해소하는데 있는게 아니라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 그 지점에 있다"며 "올해 상반기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오는 7일 임시회 폐회 중 2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로부터 2021년산 감귤 유통 처리 현황과 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고영권 정부부지사와 홍충호 농축산식품국장 등이 참석한다.



답변하는 서육 국방부 장관 5일 오후 국방부와 합참의 긴급현안 보고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서육 국방부 장관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감귤·만감류 등 농업미생물 만족도 높아 도 농업기술센터 설문 결과... 92% 농가 "만족"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주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농업미생물을 공급받은 농가를 설문조사한 결과, 92%의 만족도를 보였다고 5일 밝혔다.

제주농업기술센터는 미생물배양실 321㎡에 멸균배양기 등 전문 기자재를 갖추고 미생물비료 공정 규격 이상의 품질을 갖춘 농업미생물을 생산하고 있다. 이를 2L 소포장

비닐팩으로 공급해 농업인들이 우수한 품질의 농업미생물을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해 2월부터 감귤, 만감류, 블루베리, 옥수수 등 재배 농업인 514명에게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및 효모균 4종의 농업미생물 121t을 공급했다.

농업미생물 공급 이후 농가 활용 현황 및 공급 서비스 만족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미생물 공급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92%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미생물 사용 목적은 토양개량(36.6%), 작물 생육촉진(22.3%), 수세강화(17.7%) 순이었으며 농업미생물 사용 농가의 주 작목은 감귤(33.1%), 만감류(30.9%), 원예작물(12.0%), 키위(7.4%) 등이었다.

농업미생물 이용 농가수와 공급량은 2019년 1만2982명·77t, 2020년 1만7883명·107t, 2021년 2만105명·121t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강대리기자 dhkang@ihalla.com

이재명 후보 제주선대위 10일 출범

송영길 당 대표 등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제주 지역 선거대책위원회인 '제라진 제주선대위'가 10일 공식 출범한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제라진 제주선대위 출범식을 오는 10일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홀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제라진 제주선대위 출범식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고민정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 200여명

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재명 후보가 이날 출범식에 참석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제라진 제주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은 송재호 도당위원장이 맡고 있고, 상임선대위원장은 송승문 전 제주4·3유족회장 장강에 심 전 제주도해협협회장, 김영순 전 제주유민회 공동대표, 현진성 전 한농연제주도연합회장, 김관영 동물보호운동가 등 16명이 인선됐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社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매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락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로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요목

유라조생 4년생
감평(레드형) 3,4년생

천혜향 3,4년생, 황금향 3,4년생
한라봉 3,4년생, 남진해 3,4년생
부리는 5년생 양묘계약 합니다.
※ 분양은 2022년 10월 30일
에월을 상귀리 716번지 870평

성전온주 2년생
유라조생 1년생
천혜향 1,2년생
감평(레드형) 1,2년생
병자묘 1년생

한림종묘사
010-3690-2453, 010-5676-8820

감귤 신상품 분양
2022년 봄 출하예정 목묘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윈터프린스, 제라몬(레몬), 한라봉, 탐나는봉, 사리향(신상품천혜향), 나스미(카라향), 탐빛1호, 명유자, 아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오하라베니(궁천번이), 히로시마 7호, 일남1호, 병자묘목(1000본 이상)

오하라베니
자원종묘 착과모습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중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중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유라 5년생 화분·하례조생

- 원터프린스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
- 탐리향 5년생(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유라(1~5년생)
- 천전(가와대) 조생

※ 신상품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